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 "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" **27일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개막식에서 건설산업의 미래 동력인** **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 투자·지원 계획 밝혀..**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7일(수) 스마트 건설기술·안전 엑스포(국토교통부 주최) 개막식(11.27)에 참석했다.
 - 일산 킨텍스에서 11월 27일(수)부터 29(금)까지 개최되는 스마트 건설기술·안전 엑스포는 건설분야 7개 공공기관과 약 240여 개 기업들이 전시·체험 부스를 운영하며, 7개의 분야별 전문포럼과 기업 투자설명회와 기술이전 지원행사와 채용박람회 등이 개최된다.
 -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, 정병국 의원, 캄보디아 공공교통부 차관과 7개 공공기관과 18개 학·협회와 기업 대표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, 기조강연은 건설분야 석학인 미콜롬비아 대 이브라임 오데 교수가 “미래 건설산업의 비전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.
- 김현미 장관은 개최사를 통해 “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내년 부터 6년간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, 도로·철도 등 SOC에 대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연구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.”고 밝혔다.
 - 이어 “설계와 시공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하는 스마트 턴키사업을 확산하고 공공 건설현장 BIM(3-D 디지털 설계) 설계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활용을 확대하고 건설 공정을 디지털화 해가겠다.”고 강조했다.
 - 아울러, “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, 2.4천억원 규모의 국토교통 기술금융 펀드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겠다.”고 하였다.

2019. 11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1. 주요 추진현황

《 R&D 》

- 스마트 건설기술 R&D('20~'25, 약 2천억원) 예타통과('19.6)

《 현장 적용 》

- 스마트 턴키제도 도입

- 턴키 등 입찰시 스마트건설기술 평가항목 신설('19.2), 스마트 건설 기술적용시 턴키사업 발주허용('19.4) 등 건진법 하위규정 개정

* '19년 신규 공공발주 기술형입찰공사(턴키 등) 17건 중 13건에 스마트기술 적용

* 턴키 비대상 사업에 스마트기술 적용하여 턴키로 발주하는 스마트 턴키 2건 추진('19.10 대상선정

- 인천검단 제로에너지 시범사업(LH, '20.1 발주), 송산 국제테마파크(수공, '20.5 발주)

-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시범사업 추진

- 4개 공공기관(도공·철도시설공단·LH·수공)의 26개 현장에 BIM 설계·모듈러공법·드론측량 등 주요기술을 일부공정에 시범적용 중

- 도로공사 BIM 전면설계* 발주('19.5 대산-당진 고속도로 4공구)

* 2-D 설계를 하지않고 BIM으로만 설계(이를 위해 '18.12 도공 자체 설계기준 수립)

* 2D·3D(BIM) 병행설계(양평-이천, '17.1~'18.10) → 3D(BIM) 전면설계(대산-당진, '19.9~'21, 총사업비 협의지연('18.12~'19.5)) → 설계용역 50% 전면설계('20) → 100% 전면설계('21)

《 산업 육성 》

-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2단계 개소('19.6)

- 입주기업을 14개 → 21개로 확대, 센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('19.8 건진법 개정), '20년도 예산 대폭확대('19년 8억 → '20년 49억)

- 기술금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벤처펀드('25년까지 정부 1,200억원·민간 1,200억원, 한국벤처투자 운용) 조성('20년도 예산 100억원 반영)

- 스마트 건설기술·안전 엑스포 개최(11.27~11.29, 일산 킨텍스)

2. 2020년 추진계획

《 R&D 》

- 스마트 건설기술 R&D를 착수('20.4)하고 이와 연계하여 핵심 스마트 건설기술을 총동원하여 전 공정에 일괄 적용하는 '패키지형 스마트 턴키사업' 추진('20.하)
 - * 가상시공·모듈러 시공·토공장비 자동화·로봇크레인·드론측량·스마트 안전관리 등
 - * 스마트 건설기술 R&D 사업의 현장실증 과업과 연계하여 추진(도로공사 대상)
- 도로·건축·지하시설·철도 등 분야별로 스마트 유지·관리 R&D 신규추진('19.11 도로·건축 예타신청, '20.하 지하시설 예타신청 등)

《 현장 적용 》

-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('20년 중 2~3건 추가 발주)
- BIM 설계용역의 납품절차·성과품 표준 등에 대한 정부 표준 설계 기준 수립('20.상), BIM 전면설계를 공공공사 전반으로 확대추진('20~)
 - * 납품절차 및 성과품 표준(설계도서 표준), 용역 인력배치 기준 등
 - * '20년중 도공은 설계용역 중 50%(3~4건), 철도시설공단은 설계용역 4건 전면설계 시행
- 민간부문 BIM 확산을 위한 공유플랫폼('19.12 운영 개시)을 콘텐츠 다각화* 및 오픈-라이브러리** 기능강화 등 고도화('20.하, 예산 10억)
 - * 분야별(도로·하천·철도 등)·단계별(기본설계·실시설계·시공설계) 작업 가이드라인 및 표준 BIM모델 등을 플랫폼을 통해 배포
 - ** BIM 설계 작업 효율화를 위해 건설자재와 설계의 시공 적정성 확인 등에 필요한 건설장비 등에 대한 BIM 모델을 제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S/W 환경 구축

《 산업 육성 》

-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규모·기능 대폭 강화
 - 입주기업 확대(21개 → 50개)를 위해 제2센터 건립 착수('20.상, 50억), 미 입주기업까지 지원 프로그램 확대('20.하)